

삼성전자 잠정합의 투표 마감 D-1

등록 2026.05.26 13:06:17



[수원=뉴시스] 김종택기자 = 삼성전자의 임금·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.

노조투표율이 90%에 육박하며 노노 갈등과 주주 단체의 무효화 소송 추진,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성과급 도미노 등이 맞물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. 2026.05.26. jtk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